

번호 01-2

제 목	국문	수가차등제실시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영문	A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for the Case-specific Medical Price Differential System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남순 문옥륜 윤태호 배성윤 서울대보건대학원			
	영문	Nam Soon Kim, OK Ryun Moon, TaeHo Yoon, SeongYoon Ba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역학() 환경()	발 표 자	일반회원() 전 공 의()	발표 형식	구 연() 포스터()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V) → 완료 예정 시기: 99년 10월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왜곡되어 2차 및 3차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장비와 시설이 집중된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의료이용의 흐름이 고가의 의료, 치료중심의 의료, 투약위주의 의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비가 상승함은 물론 의사환자관계가 파편적이어서 환자와 의사가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료기관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여 일차의료기관의 외래기능을 회복하고 2,3차 의료기관은 본래의 기능인 중증환자의 진료 및 연구와 교육 등의 기능을 살려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한국의료계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관성화된 의료이용행태로 보아 수가의 조절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제도를 이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수요자가 갖고있는 수가차등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파악한다.
2. 본인부담금변화시 의료이용행태의 변화를 예측한다.

2. 연구 방법

1,2,3차 의료기관별로 외래를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가차등제의 기본내용과 선호하는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금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이용과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각 의원 267명(34.9%), 병원급 의료기관 276명(36.1%), 대학병원 221명(28.9%)을 포함한 총 764명에게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환자가 생각하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수가차등제에 대한 찬반여부와 와 본인일부부담금 조정시 이용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과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변화율을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의 중증도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5.8세로 여성이 446명(58.4%)으로 남성317명(41.6%)이었다. 의료보장유형은 직장의료보험 47.6%,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33.9%, 의료보호 및 무보험자는 각각 7.6%, 2.0%였다. 의료기관 이용빈도는 의원이 48.1%로 가장 많았다. 환자가 생각하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의 중증도는 경증질환 69.1%, 중등도 질환 24.8%, 중증질환 6.1%의 순이었다. 외래요양시 선호하는 의료기관은 '경증'인 경우 51.9%가 의원이었고 '중증질환'에서는 47.4%가 대학병원을 이용하여 중증 질환일수록 대학병원 이용빈도가 증가하였다. 입원요양시 선호하는 의료기관은 '경증'은 37.5%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등도의 질환'은 65.4%는 대학병원, '중증질환'은 대학병원과 병원이용이 각각 55.6%와 44.4%를 차지한 반면에 의원은 없었다.

질병별 의료기관이용 적정성 여부에 따른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제도 차등화에 대해서 63.8%가 찬성하였다. 경증질환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료기관별로 차등을 둘 때 74.7%가 의원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본인일부부담비용이 증가해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은 약 25%였다. 경증질환으로 의원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은 13.8%인하,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시 바람직한 본인부담금의 평균인상율은 6.87% 대학병원은 7.97%로서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중등도질환을 앓을 때 본인일부부담금 변화시 63.9%는 병원급 의료기관, 36.1%는 대학병원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중증의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을 14.6%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